**재무제표 모르면 주식투자 절대로 하지마라**

1. **재무제표와 주식투자**

재무제표를 보는 것만으로 수익을 내는 것은 아니다(회계사-재무제표를 만드는 것과 보는 것은 별개의 영역)

투자자가 잘 해야하는 것은 재무제표를 보는 법

재무상태표의 구조(자산 부채 자본)

전자공시 보는 방법(dart)-재무제표 뿐만 아니라 감사보고서등도 확인 가능

손익계산서의 구조(일정기간 회사의 영업성과를 보여주는 표)-수익, 비용, 이익(=수익-비용)간의 관계 보여줌

1. **손실을 줄이는 방법**
2. **시장에서 살아남는 법 : 살아남는 자가 강한 자다.( 이익을 못 보는 건 수익이 낮아서가 아니라 손실이 크기 때문이다.)**

주식을 샀는데 수익이 올랐다면 ‘조금 더 샀어야 했는데’라고생각함

만약 손해를 봤다면 ‘그때 팔았어야 했는데’라고 생각하면서 대다수가 가치투자자로 바뀜

그러다가 완전 가치가 떨어졌을때는 예금으로 묻어둘걸 하면서 후회

산술평균과 기하평균(매출액)- 고위험 고수익은 고위험 고손실과 같은말

**주가지수가 올랐는데 왜 투자자가 손해를 볼까?**

코스피지수는 시가총액가중방식지수 1980년 1월 4일 (기준시점)의 시가 총액과 지금의 시가총액을 비교해서 지수를 산정

특정종목이 상장되면 원래 있었던 것처럼 가정해 조정해주거나 폐지되면 원래 없었던 것처럼 가정하여 조정해준다

우상향한 주가지수에도 상장폐지된 종목이 잘 반영되지 않는다고 보면됨

**재무제표는 낙법이다-낙법을 모르면 죽는다**

좋은 종목을 찾는데 유리한 게 아니라 안 좋은 종목을 거르는데 유용

상장폐지된 종목이 주가지수에 반영되지않기 떄문에 주가지수가 올라도 투자자가 손해를 보는 경우가 생기기 떄문에 재무제표를 보는 것이 필요

1. **회사의 숨은 의도를 읽는 법 : 숫자의 진실(왜 주가가 2주 만에 반 토막이 나는가? / 적자가 몇 년이면 상장폐지가 되는가?)**

당기순이익(기업의 일정기간의 순이익)이 적자인 경우를 당기순손실이라고 하는데 이 손실이 몇 년 연속이면 관리종목에 편입되는지

코스피(유가증권시장)는 관련규정 없음 코스닥시장에는 당기순손실이 아닌 영업손실과 관련

영업손실(매출총이익에서 판매비와 일반관리비를 차감한 금액)이 4년 연속이면 관리종목 편입, 5년 연속이면 상장폐지

3년 연속 영업손실을 기록한 종목만 확인해도 최악인 상황 미리 피할 수 있음

하지만

10년 연속 영업손실을 기록한 코스닥 상장사가 있음

첫번째 이유

코스닥 시장에서는 법인의 기업규모, 재무상태, 건전성, 업종 등을 고려하여 기업을 네 가지 소속부(우량기업, 벤처기업, 중견기업, 기술성장기업)로 구분

이때 기술성장기업에 해당되면 규종의 예외가 됨

기술력은 있지만 상품화하여 이익을 내기까지 오랜 기간이 걸리는 기업들에 대해서 상장을 통해 자금조달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해주는 것 바이오 기업이 대표적인예

두번째 이유

적용하는 재무제표의 차이

국제 회계기준(IFRS)dl 도입되면서 연결재무제표가 기본재무제표가 되었는데 관리종목 편입여부를 결정하는 영업이익의 기준으로는 별도 재무제표를 기준으로 해 영엽이익이 발생하면 관리종목편입이나 상장폐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연결재무제표(종속기업을 고려)와 별도\*개별재무제표**

연결재무제표를 봐야됨

자회사는 모회사가 지분을 과반수 가지고 있는 경우( 지배력이 있다고 판단가능)

자회사의 지분도 합산해야해서 연결재무제표를 보는 것이 중요

확인해야할 것은 연결자본이 아닌 지배주주순이익과 지배주주지분

당기순이익(기업의 일정기간의 순이익)과 영업이익중 투자자에게 중요한 것은 영업이익이다

지속가능성이 더 높아 미래를 예측하는데 도움이 됨

주가는 미래를 반영하기 때문에 투자자 입장에서는 일회성의 손익을 제외한 영업이익에 관심을 두는 것(코스닥시장에서도 상장폐지요건이 당기순손실이 아닌 영업손실의 지속)

4년마다 이익이 나는 올림픽종목

분식의도- 매출액과 영업이익 정도만 보는 것이 아니라 전체 흐름을 읽고 회사의 의도를 파악해라

**중단사업부문**

대손충당금(회사가 돈을 빌려줬을 때 다 받으면 좋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 생김 이때 빌려줬다 생기는 손해를 대손이라고 함)

이런 대손가능성을 고려해서 채권의 적정가치를 표시하기 위해 사영하는 것이 대손충당금

갑작스러운 증자

상장폐지의 세번째 규칙(지속적인 영업손실/ 매출액 일정액 미만/)

**관리종목 편입이나 상장폐지, 증자는 사전에 예측이 가능한 경우가 많음**

자본잠식 가능성이 있는 종목에 투자하지 말라

1. **악재를 피하는 법 : 소나기는 피하고 보자(갑작스러운 증자에 당황하는 투자자들)**

감사의견 한 줄만 읽어도 재산을 지킨다.

감사의견이 적정이냐 아니냐가 중요한 것이 아님

확인해야 할 것은 강조사항(과거 특기사항)

감사의견은 회사가 제시한 재무제표와 회사의 재무상태가 일치하는지에 대해서만 제시하는 의견

감사인은 망할 것 같은 재무제표에 적정의견을 제시하면서 망할 위험이 높다는 것을 따로 강조하는데 강조사항에 계속기업 불확실성이라는 내용을 기재한다

1. **수익을 내는 방법**

**좋은 기업에 투자하지 말라**

돈을 벌기 위해서는 싸게 사고 비싸게 파는 것이다.(이상적인 원칙)

가치평가가 주식투자에서는 필수

측정하는 방법은 첫번째 PER(Price Earning Ratio)로 가격과 이익간의 비율을 따져 주식이 비싼지 싼지 알 수 있다

다른 방법으로는 PBR(Price Bookvalue Ratio)로 가격과 장부가치를 비교해 싼지 비싼지를 가늠  
또한 PER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현금흐름으로 평가하는 방법-현금흐름을 기업가치의 척도로 보는 것(PCR : Price Cashflow Ratio)

초창기 벤처기업이나 바이오 회사의 경우는 기업가치를 매출액을 척도로 삼아야한다는 주장인 PSR(Price sales Ratio)

재무제표를 볼 줄 모른다면 주식의 가치를 매기기가 어렵고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투자의 원칙도 지키기 힘듦

**투자의 원칙은 하나다**

**주식가치를 측정하는 방법들**

**상대가치법은 문제가 있다**

roe(자기자본이익률)를 추정하기 위해 재무제표를 보는 것이 필요

기업이 자기자본을 활용해 1년간 얼마를 벌어들였는가를 나타내는 대표적인 수익성지표

CAPM 자본자산 가격결정모형

자산의 가격은 수익률에따라 정해지는데 수익률은 위험에 비례

주가는 대응하는것이지 예측하지 말라

주가는 이미 미래를 반영하고 있는 경우가 많음